

# 세계최강의 불꽃정신 철강신화는 계속된다

## 광양제철소 개소 31주년

- 1983년 650만평 규모 조성 ● 1987년 첫 쇳물 생산 ● 조강연산 2300만t 생산체제 ● 세계 최대 단일제철소로 성장



### 세계 자동차 11대 중 1대는 광양제철에서 만든 철 사용 자동차강판으로 제2 도약...사회봉사 등 지역 상생 앞장

세계를 누비는 자동차 11대 중 1대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철을 사용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더구나 그 철을 광양에서 만든다는 것 또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백승관)가 자동차 강판 전문 제철소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개소(開所) 31주년을 맞았다.

광양만 21㎢(약 650만평)의 거대한 바다와 갯벌을 매워 들어선 광양제철은 전남은 물론 국가경제를 30여년간 견인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철강산업의 산증인=광양제철은 지난 1981년 11월, 포항에 이어 광양을 제2제철소 부지로 확정된 뒤 1983년 제철소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광양제철은 1987년 5월 조강(粗鋼)연산 270만t의 1기 설비 준공을 시작으로 1988년 7월 2기, 1990년 12월 3기, 1992년 10월 4기에 이어 1999년 3월, 5기 설비 종합준공을 마쳤다.

1985년 착공해 1987년에 첫 쇳물을 생산했으며 단위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창립 30여년 만에 세계 철강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광양제철은 조강연산 2300만t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철소로 성장했다.

◇자동차 강판으로 '제2의 도약'=광양제철소가 지난 한해 동안 생산한 2023만t의 조강 가운데 37.6% 수준인 760만t 가량을 자동차강판 생산에 사용했다. 전 세계 자동차 연간 생산량이 약 8700만대임을 감안하면 세계를



백승관 소장

누비는 자동차 11대 중 1대는 광양제철소의 철을 사용한 셈이다.

현재 6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광양제철소는 조업 특성상 24시간 가동되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이 됐다.

◇환경·지역사회와 상생=광양제철소는 올 초

국내 최초로 해수 담수화 상용화 시설을 준공해 1일 산업용수 소요량 26만t 가운데 약 11% 가량인 3만t의 용수를 공급받는 등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 밖에 외적 성장과 함께 수질·대기관리 등 다양한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1982년 광양제철 공장 설립이래 현재까지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환경개선 사업에 지속 투입해 왔으며 지역사회에도 꾸준히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의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무료 급식시설인 '나눔의 집'을 개소해 10년째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을 결성해 사람의 집짓기, 농어촌 봉사, 수중정화활동, 체육발전, 문화공연, 교육지원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백승관 광양제철소장은 "제철소 건설 당시의 일념으로 전력 질주한다면 위대한 '포스코 재창조'가 앞당겨 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1987년 첫 쇳물을 생산했으며, 단위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철광석이 많은 공정을 거쳐 후판(厚板)으로 만들어져 나오고 있다.



1983년 10월 24일 광양제철 개소식 모습.

## 광양항 문제점 진단 '특화 발전전략' 세운다

### 10억 들여 용역 진행중

여수 지방해양항만청이 광양항이 가진 경쟁력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할 '광양항 특화 발전 전략'을 세운다.

여수 지방해양항만청은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남대 등에 의뢰해 광양항의 당면 과제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한 '광양항 특화발전 전략' 용역을 진행중이다. 내년 8월경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발전 전략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광양항 주변 산업 단지의 화물흐름 분석을 통해 물동량 예측 ▲물동량 창출 기회 확보 ▲컨테이너 부두와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 전략 마련 ▲국제 해상환적기지 등 전략적 특성을 고려한 화물사업 모델 제시 ▲항만운영 고도화 방안과 생산성 증대 방안 ▲안전 향상을 위한 항로 정비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광양항이 해양산업의 중심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규 일자리 제공 등 국가와 지역 경제발전

에 이바지하며, 다른 항만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광양항은 개항 45년 만에 96개 선석, 2억8000만t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 제2의 항만인데도 그동안 시설 투자와 비교해 컨테이너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오일 허브코리아 여수(OKYC) 유치에 따른 오일 허브로의 가능성, 앞으로 도로 재개발지역내 미래지향적 에너지 허브단지 조성, 광양항 3단계 준설도 투자(울진 2산단)내 복합물류와 제조시설 유치, 정박지내 해상 환적 수요 등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제조·물류 활동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

여수 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에서는 저명인사 인터뷰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해 광양항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도출해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진상초 '윈드 오케스트라' 두번째 정기연주회 호평



광양 진상초등학교(교장 송기덕) 학생들로 구성된 윈드 오케스트라가 지난 28일 광양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두 번째 정기연주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이날 연주회는 서현 교사의 지휘 아래 행진곡 'K점을 넘어서'를 시작으로 동요 행진곡 '새싹들이다'와 '아기염소', '렛잇고'(Let it go) 등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냈다.

지난 2012년 11월에 창단한 진상초 윈드 오케스트라는 진상면민의 날 축하 연주와 공립 노인 전문요양병원 위문 공연 등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기부도 계속해 오고 있다. 송기덕 교장은 "이번 연주회는 단원들은 물론 광양시민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고,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꿈의 무대가 됐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광양시 '어린이 안전대상' 공모 안행부 장관상 수상

광양시가 안전행정부 주최의 '제4회 어린이 안전대상' 공모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상(상금 500만원)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서면심사와 공적 설명회, 현지실사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광양시는 ▲CCTV 통합 관제센터를 통한 어린이 안전사각지대 해소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 ▲불안전요소 신고센터 어린이 안전 위험요소 선제적 예방 ▲범시민 어린이 교통안전 체계적 추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가치와 사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사회와 함께하는 회사

저희 법인은 기존의 보상 및 담보평가는 물론이고 부동산투자자문, 개발타당성분석, 기업가치 및 부동산 증권화에 수반된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가람평가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자격자와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과도 NET-WORK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금융기관 및 부동산회사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정 대항감정평가 법인  
**자산재평가 전담팀 운영**  
공정 가치평가본부 02-2051-2800

(주)가람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T.(061)375-6540 F.(061)375-6542

### 정부 조달물자계약 업체

## 모든 가구가 한곳에!

취급품목  
사무용  
교육용  
의료용  
주방가구  
아파트실내가구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웹하드 ID : gana82 / PW : 1111  
광양시 중마로 494-1 (마동정수장 앞)